

# 『주역』 원형이정(元亨利貞) 해석의 비교 연구

왕필(王弼) · 정이(程頤) · 주희(朱熹) ·  
정약용(丁若鏞)을 중심으로

서근식

강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 한국철학 전공  
rootsik@hanmail.net

- I. 머리말
- II. 왕필의 의리역학적 견해
- III. 정이의 의리역학적 견해
- IV. 주희의 상수 · 의리역학적 견해
- V. 주희 역학의 보완으로서 정약용의 상수역학
- VI. 원형이정 해석에 대한 학자별 특징
- VII. 맺음말

## I. 머리말

『주역』은 64괘 384효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64괘 384효는 모두 괘사·효사를 가지고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괘사(卦辭) 부분이다. 괘사에서 ‘원형이정(元亨利貞)’이라고 쓰인 경우가 있는데, 어떤 괘는 원형이정만 쓰였고 어떤 괘는 원형이정 이외에 다른 말로 쓰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원형이정의 해석은 학자들마다 다르고 그 의미도 다르다. 이 글에서는 그 의미에 대해 왕필(王弼, 226-249)<sup>1)</sup>, 정이(程頤, 1033-1107)<sup>2)</sup>, 주희(朱熹, 1130-1200)<sup>3)</sup>, 정약용(丁若鏞, 1762-1836)<sup>4)</sup>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주역』에서 원형이정이라고 괘사에 쓰인 부분은 모두 건괘(乾卦), 곤괘(坤卦), 준괘(屯卦), 수괘(隨卦), 임괘(臨卦), 무망괘(无妄卦), 혁괘(革卦) 등 7괘이다. 원형이정이 쓰인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乾 元亨利貞

坤 元亨利牝馬之貞 君子 有攸往 先迷後得 主利 西南得朋 東北喪朋 安貞 吉

屯 元亨利貞 勿用有攸往 利建侯

隨 元亨利貞 无咎

臨 元亨利貞 至于八月 有凶

无妄 元亨利貞 其匪正 有眚 不利有攸往

革 巳日 乃孚 元亨利貞 悔亡

이 가운데 건괘와 곤괘를 중심으로 살필 것이며, 나머지 괘들도 필요한 부분은 인용하여 사용하겠다.

국내의 연구 성과를 보면, 왕필<sup>5)</sup>, 정이<sup>6)</sup>, 주희<sup>7)</sup>, 정약용<sup>8)</sup>의 연구

1) 魏나라 사람으로 字는 輔嗣이다.

2) 北宋 때의 사람으로 字는 正叔이고 號는 伊川이다. 諡號는 正公이다. 伊川伯에 봉하여 졌으므로 伊川先生이라 尊稱된다. 후에 형 程顥와 함께 二程子로 불렸다.

3) 南宋 때의 사람으로 字는 元晦·仲晦, 號는 晦庵·晦翁·雲谷老人·逯翁이다. 諡號는 文公이다. 후에 朱子라고 불렸다.

4) 本貫은 羅州, 小字는 歸農, 字는 美庸·頌甫, 號는 侯菴, 自號는 茶山·籟翁·苔叟·紫霞道人·鐵馬山人, 堂號는 與猶堂이다.

5) 王弼의 『周易』은 『王弼集校釋』 上, 下(中華書局, 1999)에 실려 있는 『周易注』을 주로 참고하였다.

6) 程頤의 『周易』은 『二程集』 上, 下(中華書局, 2008본) 가운데 『二程集』 下에 실려 있는 『周易程氏傳』을 주로 참고하였다.

성과는 대부분 정약용에게 집중되어 있다. 국내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왕필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임채우의 『왕필 역 철학 연구: 이간어번(以簡御繁)사상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가 있다. 정이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엄연석의 『정이 『역전』의 역학이론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가 있다. 주희에 관한 주요 연구 성과로는 백은기의 『주자역학연구』(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와 이세동의 『주자 《주역본의》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가 있다. 정약용에 관한 연구 성과로는 김왕연의 『다산 역학의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정해왕의 『주역의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 정약용의 역학을 중심으로』(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김인철의 『다산 『주역』 해석체계에 대한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이 학위논문은 2003년에 경인문화사에서 『다산의 주역 해석체계』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김영우의 『정약용의 역학 사상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박주병의 『『주역』의 괘에 대한 연구: 정약용 역학을 중심으로』(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이 학위논문은 2002년 서문당에서 『주역반정(周易反正)』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유문상의 『다산 역학의 특성과 윤리적 함의』(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황병기의 『다산 정약용의 역상학』(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이 학위논문은 2014년 동과서에서 『정약용의 주역철학』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서근식의 『조선후기 실학파의 『『주역』 해석방법론 연구』(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장정욱의 『『주역』의 구성체제와 역상의 상징체계: 다산역학을 중심으로』(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이난숙의 『다산 정약용의 중국역학 비판연구: 『역학서언』을 중심으로』(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등이 있다. 국내의 박사학위논문의 연구 성과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정약용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 사람이 집필했기 때문에 대부분 같은 경향을 띤다. 그리고 국내의 일반논문도 정약용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 사람이 저작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학자들의 연구에는 『주역』의

7) 朱熹의 『周易』은 『朱子全書』(全27册)(上海古籍出版社, 2002년) 가운데 『朱子全書』 1에 실려 있는 『周易本義』를 주로 참고하였다.

8) 丁若鏞의 『周易』은 『(校勘·標點) 定本 與猶堂全書』(全37册)(茶山學術文化財團, 2012년) 가운데 『(校勘·標點) 定本 與猶堂全書』 15, 16에 실려 있는 『周易四箋』을 주로 참고하였다.

원형이정 해석에 관해서는 성과가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원형이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가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원형이정이 어떻게 해석되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왕필은 도가적이면서 의리역학을 주장했으며, 정이는 유가적이면서 의리역학을 주장하였다. 왕필의 역학에서 정이의 역학으로 변해가면서 『주역』은 도가적 색채에서 유가적 색채로 변했다. 이 글은 도가역학에서 의리역학을 탐색하는 역학사에 관한 글이 아니므로 원형이정 해석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정이의 의리역학을 인정하면서도 주희는 새로운 방법을 택하였으며 그의 역학은 상수·의리역학이라고 할 수 있다. 주희의 역학은 왕필의 의리역학과 기존의 상수역학을 종합함으로써 완벽한 체계를 갖추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양한 이견이 공존한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역리사법(易理四法)<sup>9)</sup>이라는 것을 내세우며 새로운 방법으로 『주역』을 해석하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원형이정의 해석을 보면서 풀어가도록 하겠다. 이 글에서 다루는 학자들은 당대에 유명한 역학자들이다. 이들의 역학상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이들의 원형이정에 대한 해석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궤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궤를 판단하는 판단사인 원형이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 II. 왕필의 의리역학적 견해

왕필은 그의 짧은 생애 동안 『노자』의 주석과 『주역』의 주석을 남겼다. 왕필의 『노자』 주석은 현재까지도 가장 권위 있으며, 그의 『주역』 주석도 『십삼경주소(十三經註疏)』에 실릴 정도로 뛰어난 것이었다. 역학사에서 왕필<sup>10)</sup>의 공헌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득의망상론(得意忘象論)

9) 丁若鏞의 易理四法은 推移, 物象, 互體, 爻變을 가리키는 말로 丁若鏞 易學의 핵심이다.

10) 王弼의 易學에 대해서는 廖名春·康學偉·梁韋弦, 『周易研究史』(湖南出版社, 1991), 149-159쪽; 鈴木由次郎, 『漢易研究』, 日本, 明德出版社, 昭和38년(1963); 문재근, 『한대역학연구: 궤기역학(卦氣易學)을 전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0); 朱伯崑, 『易學哲學史』 第一卷(崑崙出版社, 2005), 245-280쪽(김학연 외 역, 『역학철학사』 2, 소명출판, 2012, 5-118쪽)을 참조할 것.

이다. 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는 괘상(卦象)에 대해 문맥에 맞는 의미를 얻었다면 더 이상 괘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왕필이 이러한 득의망상론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상수역학<sup>11)</sup>의 복잡함으로부터 벗어났다. 왕필은 『주역약례(周易略例)』 「명상(明象)」에서 다음과 같이 득의망상론을 주장하였다.

대저 상(象)은 뜻(意)을 나타내는 것이다. 말(言)은 상(象)을 밝히는 것이다. 뜻을 다하는 것으로는 상(象)만 한 것이 없고 상(象)을 다하는 것으로는 말만 한 것이 없다. 말은 상(象)에서 생겨난 까닭에 말을 찾아 들어가면 상(象)을 볼 수 있으며, 상(象)은 뜻에서 생겨난 까닭에 상(象)을 찾아 들어가면 뜻을 볼 수 있다. 뜻은 상(象)으로써 다하고 상(象)은 말로써 드러난다. 그러므로 말은 상(象)을 밝히는 것이니 상(象)을 얻으면 말을 잊고, 상(象)은 뜻을 보존하는 것이니 뜻을 얻으면 상(象)은 잊는다. 이것은 올라미가 토끼를 잡는 도구이지만 토끼를 얻고서는 올라미를 잊고, 통발이 고기를 잡는 도구이지만 고기를 얻고서는 통발을 잊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말은 상(象)의 올라미이고 상(象)은 뜻의 통발이다. 그러므로 말에 집착하는 것은 상(象)을 얻는 것이 아니고 상(象)에 집착하는 것은 뜻을 얻는 것이 아니다. 상(象)이 뜻에서 생겨났다고 하여 상(象)을 보존한다면 보존되는 것은 그 상(象)이 아니며, 말이 상(象)에서 생겨났다고 하여 말을 보존한다면 보존되는 것은 그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상(象)을 잊어야 뜻을 얻을 것이며, 말을 잊어야 상(象)을 얻을 것이다. 뜻을 얻는 것은 상(象)을 잊는 데 있고, 상(象)을 얻는 것은 말을 잊는 데 있다. 그러므로 상(象)을 세움으로써 뜻을 다하면 상(象)은 잊어버릴 수 있고, 획(畫)을 겹쳐서 정(情)을 다하면 획은 잊어버릴 수 있다.<sup>12)</sup>

왕필은 이와 같이 득의망상론을 주장함으로써 현대 상수역학이 아닌 의리역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현대역학에서는 연구자 본인의 입맛에 맞게 『주역』을 수정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 즉, 상(象)을 구하다가 이치에

11) 漢代易學은 象數易學을 官學으로 여기고 義理易學은 費直 등에게 미미하게 이어져 내려왔다. 漢代易學에 대해서는 『漢易研究』[東京: 明德出版社, 昭和38年(1963)]; 문재곤, 『한대역학연구: 괘기역학(卦氣易學)을 전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0); 廖名春·康學偉·梁韋弦, 위의 책, 72-132쪽; 朱伯崑, 위의 책, 113-232쪽(김학권 외 역, 『역학철학사』 1, 소명출판, 2012, 261-509쪽) 참조할 것.

12) 『王弼集校釋 下』 『周易略例』 「明象」, 609쪽. “夫象者 出意者也. 言者 明象者也. 盡意莫若象 盡象莫若言. 言生於象 故可尋言以觀象 象生於意 故可尋象以觀意. 意以象盡 象以言著. 故言者所以明象 得象而忘言 象者 所以存意 得意而忘象. 猶蹄者所以在兔 得兔而忘蹄 筌者所以在魚 得魚而忘筌也. 然則 言者 象之蹄也 象者 意之筌也. 是故 存言者 非得象者也 存象者 非得意者也. 象生於意而存象焉 則所存者乃非其象也 言生於象而存言焉 則所存者乃非其言也. 然則 忘象者 乃得意者也 忘言者 乃得象者也. 得意在忘象 得象在忘言. 故立象以盡意 而象可忘也 重畫以盡情 而畫可忘也.”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오자 이를 수정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주역』은 경전(經典)으로 여겨질 수 없을 정도로 글자나 문구를 수정하였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 왕필이다. 왕필은 득의망상론을 제시함으로써 더 이상 상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었고, 의리역학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왕필이 원형이정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왕필은 건괘(乾卦)의 괘사의 원형이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하였다.

「문언전(文言傳)」에 갖추어져 있다.<sup>13)</sup>

매우 간단한 해석이다. 왕필은 건괘 「문언전(文言傳)」에 나온 대로 해석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건괘 「문언전」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을까? 건괘 「문언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원(元)은 선(善)의 으뜸이요, 형(亨)은 아름다움의 모임이요, 이(利)는 의(義)에 화합함이요, 정(貞)은 일의 근간이다. 군자가 인(仁)을 체득함이 사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으며, 모임을 아름답게 함이 예(禮)에 합할 수 있으며, 물(物)을 이롭게 함이 의(義)에 조화될 수 있으며, 정고(貞固)함이 일의 근간이 될 수 있으니, 군자는 이 사덕을 행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건(乾)은 원(元)하고 형(亨)하고 이(利)하고 정(貞)하다고 한 것이다.<sup>14)</sup>

건괘 「문언전」에서는 원형이정을 “원(元)하고 형(亨)하고 이(利)하고 정(貞)하다”라고 번역하였다. 그러나 『주역』의 내용에 대해 「문언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한 것은 좋게 보면 ‘이전해경(以傳解經)’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경해경(以經解經)’의 관점은 아니다. 만약 왕필이 ‘이경해경’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다른 괘에서는 모두 “원형(元亨)하고 이정(利貞)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으므로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또 다른 경전들을 들어 해석해야 하는데 왕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준괘(屯卦)에 대한 왕필의 주석을 보더라도 그렇다. 왕필은 준괘 괘사의 원형이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3) 『周易注』 乾卦 卦辭에 대한 王弼註, 211쪽. “文言備矣.”

14) 『周易』 「文言傳」 乾卦. “元者 善之長也 亨者 嘉之會也 利者 義之和也 貞者 事之幹也. 君子體仁 足以長人 嘉會 足以合禮 利物 足以和義 貞固 足以幹事 君子行此四德者. 故曰 乾元亨利貞.”

강유(剛柔)가 처음 사귀는 것이니 그러므로 어렵다. 사귀지 않으면 꼭 막히므로 둔(屯)은 크게 형통하게 된다. 크게 형통하면 막히는 것이 없으므로 정(貞)하는 것이 이롭다.<sup>15)</sup>

왕필의 해석을 보면 ‘대형(大亨)’과 ‘이정(利貞)’으로 나누어본 것임을 알 수 있다. ‘대형(大亨)’은 ‘원형(元亨)’과 같으므로 여기에서는 분명히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번역하였다. 이렇듯 왕필이 원형이정에 대해 해석한 것을 보면 건괘만 빼놓고 모두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왜 건괘에서만 “원(元)하고 형(亨)하고 이(利)하고 정(貞)하다”라고 한 것일까? 왕필도 다른 모든 괘에서는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건괘의 원형이정에 대한 주석에서는 「문언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하고, 「문언전」을 보면 어떠한 주석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왕필이 흔히 『역전(易傳)』이라는 부분을 모두 주석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왕필은 『역경(易經)』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계사전(繫辭傳)」, 「설괘전(說卦傳)」, 「서괘전(序卦傳)」, 「잡괘전(雜卦傳)」에 대해서는 주석을 하지 않았다.<sup>16)</sup> 그러나 왕필은 건괘와 곤괘(坤卦)에만 있는 「문언전」에 대해 주석을 하고 있다. 「문언전」을 『역경』과 직접 관련된다 고 본 것이다. 그러나 곤괘 「문언전」에는 원형이정에 대한 해석은 없으며, 곤괘의 괘사의 원형이반마지정(元亨利牝馬之貞)에 대한 주석은 있다. 왕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곤(坤)의 정(貞)함이 이로운 바는 암말에 이롭다. 말은 땅에서 다니는 것이고, 또 암컷으로 순함이 지극하니, 지극히 유순한 후에 형통하므로 오직 암말이 곧아야 이롭다.<sup>17)</sup>

여기에서도 원형이정에 대한 것은 없으며 「문언전」에도 나와 있지 않다.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원형이정의 해석이 “원형하고 이정하다”라

15) 『周易注』 屯卦 卦辭에 대한 王弼註. “剛柔始交 是以屯也. 不交則否 故屯乃大亨. 大亨則 無險 故利貞.”

16) 「繫辭傳」, 「說卦傳」, 「序卦傳」, 「雜卦傳」같이 王弼이 註釋하지 않은 부분은 후에 韓伯 (332-380)이 註釋을 하였다. 韓伯의 註釋은 『王弼集校釋 下』, 535-590쪽 『周易注』의 부록으로 실려 있다. 韓伯의 易學사상에 대해서는 朱伯崑, 앞의 책, 297-315쪽(김학권의 역, 『역학철학사』 2, 소명출판, 2012, 119-161쪽)을 참조할 것.

17) 『周易注』 坤卦 卦辭에 대한 王弼註, 225쪽. “坤貞之小利 利於牝馬也. 馬 在下而行者也 而又牝馬 順之至也. 至順而後乃亨 故唯利於牝馬之貞.”

고 되어 있는 것은 준괘이다. 왕필의 주석에서 원형이정에 대한 주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문언전」과 준괘뿐이다. 그러나 준괘는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했으며, 다른 괘들에서도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했다. 왕필도 비슷한 고민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괘들과 마찬가지로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번역을 하려면 「문언전」의 내용을 포기해야 하고, 「문언전」의 내용을 인정한다면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할 수 없다. 원형이정은 『역경』의 말이고, 「문언전」은 『역전』의 글이다. 『역경』의 해석을 보다 중요시해야 하지만 왕필은 “원형하고 이하고 정하다”라고 해석되는 「문언전」을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써 건괘와 다른 괘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왕필이 젊은 나이에 요절함으로써 더 이상의 학문적 진전은 없었다. 왕필은 「문언전」의 내용을 『역경』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즉, 왕필은 「단전(象傳)」, 「상전(象傳)」, 「문언전」을 『역경』과 같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왕필은 「계사전」, 「설괘전」, 「서괘전」, 「잡괘전」은 『역경』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왕필역학의 특징은 간이(簡易)함이다. 그가 득의망상론의 제시한 것도 하나의 의미로써 번다함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였다. 그 결과 『주역』의 주석에서도 매우 간단한 주석만 붙였을 뿐이다. 왕필의 원형이정에 대한 주석을 살펴보면 건괘와 다른 여러 괘들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데도 무시하였다. 왕필은 원형이정의 해석에서 『역경』의 해석보다 『역전』에 속한 「문언전」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 III. 정이의 의리역학적 견해

왕필역학의 특징이 간이함이라면 정이는 왕필의 입장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왕필이 20여 년의 짧은 생애에 『주역』의 주석을 완성한 반면 정이는 70대까지 살았고 만년에 『주역』의 주석을 완성하였다. 정이의 『역전(易傳)』<sup>18)</sup>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탄생한 역작이었다.<sup>19)</sup> 또 왕필이

18) 程頤의 『易傳』은 후에 『程氏易傳』으로 불리게 되는데, 『易經』과 『易傳』으로 구분할



위(魏)나라 시대의 인물이라면 정이는 북송(北宋)시대의 인물로 시대상으로 800년 정도 차이 난다.

이제 정이의 『주역』에 나타난 원형이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정이는 건괘 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건(乾)은 만물의 시초이다. 그러므로 천이 되고 양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군주가 되는 것이다. 원(元)·형(亨)·이(利)·정(貞)을 사덕(四德)이라 하니, 원(元)은 만물의 시초이고 형(亨)은 만물의 성장이고 이(利)는 만물의 이름이고 정(貞)은 만물의 완성이다. 오직 건괘·곤괘만이 이 사덕을 모두 소유하였고 다른 괘에서는 일에 따라 변한다. 그러므로 (다른 괘에서는) 원(元)은 오직 선(善)과 대(大)가 되고, 이(利)는 정고(正固)함을 주로 하고, 형(亨)·정(貞)의 체(體)는 각기 그 일에 따라 칭하는 것이니, 사덕의 뜻이 넓고 크다.<sup>20)</sup>

정이도 왕필이 건괘를 해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형이정을 “원(元)하고 형(亨)하고 이(利)하고 정(貞)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정이는 왕필보다 원형이정에 대한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다. 또한 정이는 오직 건괘와 곤괘만 네 가지 덕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왜 건괘와 곤괘만 네 가지 덕을 모두 포함하는가? 다른 괘에서도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문장이 보이는데 정이는 왜 이와 같이 말한 것인가? 이러한 부분은 정이가 건괘와 곤괘를 다른 괘들보다 우위에 두고자 하는 생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건괘과 곤괘만 「문언전」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언전」에 대한 정이의 견해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문언전」에서도 건괘와 비슷하게 주석을 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그러나 정이도 모든 원형이정에 대해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라고 해석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정이는 무망괘(无妄卦) 괘사에서 다음과

---

수 있는 『周易』의 『易傳』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易傳』 앞에 ‘程氏’를 붙이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냥 『易傳』으로 통칭하겠다.

19) 程頤의 『易學』에 대해서는 嚴連錫, 『程頤 『易傳』의 易學理論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1990); 廖名春·康學偉·梁韋弦, 앞의 책, 265-277쪽; 朱伯崑, 앞의 책 제2권, 172-208쪽(김학권 외 역, 『역학철학사』 3, 소명출판, 2012, 345-521쪽)을 참조할 것.

20) 『周易程氏易傳』 乾卦 卦辭에 대한 程頤의 註, 695쪽. “乾者 萬物之始 故爲天爲陽爲父爲君. 元亨利貞 謂之四德 元者 萬物之始 亨者 萬物之長 利者 萬物之遂 貞者 萬物之成. 唯乾坤 有此四德 在他卦則隨事而變焉. 故元 專爲善大 利 主於正固 亨貞之體 各稱其事 四德之義 廣矣大矣.”

같이 말한다.

무망(无妄)은 크게 형통할 이치가 있으니, 군자가 무망의 도를 행하면 크게 형통함을 이룰 수 있다. 무망은 하늘의 도이니, 궤는 사람이 무망의 도를 따름을 말하였다. ‘이정(利貞)’은 무망의 도를 본받음에 이로움이 정고(真正)에 있으니, 정고를 잃으면 망(妄)이 된다.<sup>21)</sup>

여기서 정이는 분명히 ‘원형(元亨)’과 ‘이정(利貞)’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번역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7괘 가운데 무망괘 말고 혁괘(革卦)가 있다.<sup>22)</sup> 정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변혁하면 크게 형통할 수 있고, 변혁하되 정도를 지킴이 이로우니, 이렇게 하면 오래하고 옛것을 버리는 뜻에 맞으며 변동의 뉘우침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회망(悔亡)’인 것이다.<sup>23)</sup>

정이가 혁괘에서도 ‘원형(元亨)’을 ‘대형(大亨)’으로 해석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이는 7괘 가운데 5괘는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라고 해석하고, 2괘는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모순되게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이의 해석도 일관성이 없다.

정이는 늦은 나이에도 왕필과는 다른 의리역학을 완성하기 위해 『역전』에 힘을 쏟으며 원형이정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7괘 가운데 어떤 괘에서는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라고 해석하고, 어떤 괘에서는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모순된 해석을 하였다.

21) 『周易程氏易傳』 无妄卦 卦辭에 대한 程頤의 註, 822쪽. “无妄 有大亨之理 君子行无妄之道 則可以致大亨矣. 无妄 天之道也 卦 言人由无妄之道也. 利貞 法无妄之道 利在貞正 失貞正則妄也.”

22) 현재 우리나라의 『周易』 번역본에는 일부 잘못된 번역이 보인다. 乾卦와 坤卦를 제외하고는 모두 “元亨하고 利貞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는 程頤가 乾卦에서 해석한 “오직 乾卦·坤卦만이 이 四德을 모두 소유하였고 다른 卦에서는 일에 따라 變한다”라는 부분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23) 『周易程氏易傳』 革卦 卦辭에 대한 程頤의 註, 951쪽. “故革之而可以大亨 革之而利於正道 則可久而得去故之義 无變動之悔 乃悔亡也.”

#### IV. 주희의 상수·의리역학적 견해

정이의 역학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주희가 새롭게 『주역』을 해석하였는데 주희는 이를 『주역본의(周易本義)』라고 하였다. 『주역본의』는 정이의 의리역학을 넘어서 의리와 상수가 하나 될 수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정이의 역학과 다른 점은 『주역전의대전』의 「범례(凡例)」를 보면 알 수 있다. 『주역전의대전』 「범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역』은 상경·하경 2편과 공자의 『십익(十翼)』 10편이 각각 따로 책이 되어 있었는데, 전한(前漢)의 비직(費直, ?-?)이 처음으로 「단전」과 「상전」으로 경문을 해석하여 경문의 뒤에 붙였다. 정현(鄭玄, 127-200)과 왕필이 이를 받들고 또 과사와 효사의 아래에 나누어 붙였으며, 건·곤의 「문언전」을 더 넣고서 비로소 ‘단왈’·‘상왈’·‘문언왈’을 덧붙여 경문과 구별하였으며, 「계사전」 이후는 예전과 똑같다. 역대로 이것을 따르니, 이것이 금역(今易)이니, 정자가 『정전(程傳)』을 지은 것이 이것이다. 송산(嵩山)의 조열지(晁說之, 1059-1129)가 비로소 옛 경을 고정하여 바로잡아 8권으로 만들었는데, 동래(東萊)의 여조겸(呂祖謙, 1137-1181)이 마침내 경 2권과 전 10권으로 정하여 만드니, 이것이 고역(古易)이니, 주자의 『본의』가 이것을 따랐다.<sup>24)</sup>

정이의 『역전』에서는 『금역(今易)』에 주석을 하였고, 『역경』과 『역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주희의 『주역본의』는 『고역(古易)』에 주석을 하였고 『역경』과 『역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역경』은 점사(占辭)로, 『역전』은 철학적 내용으로 생각하였다. 즉, 주희는 『역경』의 원형이정이라는 과사를 점치는 점사로 보았던 것이다.<sup>25)</sup> 「문언전」은 『역전』이므로 『역경』의 원형이정에 대해 철학적 해석을 한 것일 뿐이다. 주희는 건괘의 원형이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24) 『周易傳義大全』 「凡例」. “周易 上下經二篇 孔子十翼十篇 各自爲卷 漢費直 初以彖象釋經 附於其後. 鄭玄王弼 宗之 又分附卦爻之下 增入乾坤文言 始加彖日象日文言日 以別於經而繫辭以後 自如其舊. 歷代因之 是爲今易 程子所爲作者 是也. 自嵩山晁說之 始考訂古經 釐爲八卷 東萊呂祖謙 乃定爲經二卷傳十卷 是爲古易 朱子本義從之.”

25) 朱熹의 易學에 대해서는 白殷基, 『朱子易學研究』, 全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1991); 李世東, 『朱子《周易本義》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1996); 廖名春·康學偉·梁韋弦, 앞의 책, 289-301쪽; 朱伯崑, 앞의 책 제2권, 172-208쪽(김학권 외 역, 『역학철학사』 4, 소명출판, 2015, 213-390쪽)을 참조할 것.

원형이정(元亨利貞)은 문왕이 붙인 말로 한 괘의 길흉을 결단한 것이니, 이른바 단사(彖辭)라는 것이다. 원(元)은 큼이요 형(亨)은 통함이요 이(利)는 마땅함이요 정(貞)은 바르고 굳음이다. 문왕은 건도가 크게 형통하고 지극히 바르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점을 쳐서 이 괘를 얻고 6효가 모두 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점이 마땅히 대통함을 얻고 반드시 이로움이 정고함에 있다고 말하였으니, 이렇게 한 뒤에야 그 끝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성인이 역(易)을 지어 사람들에게 복서(卜筮)를 가르쳐서 사물을 열어주고 일을 이루게 하신 정교한 뜻이니, 나머지 괘도 이와 같다.<sup>26)</sup>

위 인용문은 주희가 원형이정을 점사로 보고 있음이 명확하다. 또 건괘 「문언전」에서 해석한 것과 같이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라고 하지 않고,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하였다. 여기서도 주희는 분명히 『역경』 부분과 『역전』 부분을 따로 떼어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경』은 점을 치던 책으로 여기고 『역전』은 『역경』을 공자(孔子)가 의미 있게 번역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괘 「문언전」에서는 원형이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문언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元)은 생물의 시작이니, 천지의 덕이 이보다 먼저 함이 없다. 그러므로 계절에 있어서는 봄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仁)이 되어 모든 선(善)의 으뜸이 된다. 형(亨)은 생물의 통함이니, 물건이 이에 이르면 아름답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계절에 있어서는 여름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禮)가 되어 모든 아름다움의 모음이 된다. 이(利)는 생물의 이룸이니, 물건이 각기 마땅함을 얻어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절에 있어서는 가을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의(義)가 되어 그 분수의 조화로우심을 얻음이 된다. 정(貞)은 생물의 완성이니, 실리(實理)가 갖추어져서 있는 곳에 따라 각기 충족된다. 그러므로 계절에 있어서는 겨울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智)가 되어 모든 일의 근간이 된다. 간(幹)은 나무의 몸통으로 가지와 잎이 의지하여 서는 것이다.<sup>27)</sup>

26) 『周易本義』 乾卦 卦辭에 대한 朱熹의 註, 30-31쪽. “元亨利貞 文王所繫之辭 以斷一卦之吉凶 所謂彖辭者也. 元大也 亨通也 利宜也 貞正而固也. 文王以爲乾道大通而至正 故於筮 得此卦而六爻皆不變者 言其占當得大通而必利在正固 然後 可以保其終也. 此聖人所以作易 教人卜筮 而可以開物成務之精意 餘卦放此.”

27) 『周易本義』 乾卦 「文言傳」의 元亨利貞에 대한 朱熹의 註, 146쪽. “元者 生物之始 天地之德 莫先於此 故於時爲春 於人則爲仁而衆善之長也. 亨者 生物之通 物至於此 莫不嘉美 故於時爲夏 於人則爲禮而衆美之會也. 利者 生物之遂 物各得宜 不相妨害 故於時爲秋 於人則爲義而得其分之和. 貞者 生物之成 實理具備 隨在各足 故於時爲冬 於人則爲智而爲衆事之幹. 幹 木之身而枝葉所依以立者也.”

건괘 「문언전」에서는 원형이정 자체를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해석하였다. 왕필이나 정이는 「문언전」의 이러한 말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건괘 괘사도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라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주희는 「문언전」을 『역전』으로 여겼기 때문에 원형이정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은 왕필이나 정이가 건괘 「문언전」에 얽매어 원형이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7괘 모두에서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수괘(隨卦)에서는 원형이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목강(穆姜)이 말하기를 “이 네 가지 덕이 있어야 따름에 허물이 없을 텐데 나는 모두 없으니, 어찌 수괘(隨卦)에 해당되었는가?”라고 하였으니, 지금 살펴보건대 네 가지 덕은 비록 본래의 뜻이 아니라 그 아래에 운운(云云)한 것은 점치는 뜻을 깊이 알았다 하겠다.<sup>28)</sup>

수괘에서도 원형이정을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번역하였다. 다만 여기서는 『춘추좌씨전』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네 가지 덕이라는 부분이 나온다. 이것은 분명히 원, 형, 이, 정을 네 가지 덕으로 본 것으로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그러나 주희는 “본래의 뜻이 아니니 그 아래에 운운한 것은 점치는 뜻을 깊이 알았다”라고 하여 네 가지 덕이 『주역』의 본래의 뜻이 아니고 다만 그 아래에 말한 뜻이 점치는 뜻을 깊이 알았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주희는 『춘추좌씨전』의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춘추좌씨전』에 네 가지 덕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주역』의 본래 뜻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희는 이전의 왕필·정이와는 다른 역학을 추구했다. 『주역전의대전』의 말처럼 그의 역학은 『고역』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역경』과 『역전』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원형이정도 왕필과 정이와는 다른 식으로 해석하였다. 주희는 원형이정을 7괘에서 모두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왕필이나 정이가 『주역』을 해석하면서 실수한 부분을 고쳐 중국의 역학사상을 완성한 듯하다.

28) 『周易本義』 隨卦 卦辭에 대한 朱熹의 註, 46쪽. “春秋傳 穆姜曰 有是四德 隨而无咎 我皆无之 豈隨也哉 今按四德 雖非本義 然其下云云 深得占法之意.”

## V. 주희 역학의 보완으로서 정약용의 상수역학

주희의 역학이 완전해 보이지만 『주역전의대전』이 편찬되면서 정이의 『역전』을 중심으로 편집이 이루어졌으며, 주희의 역학은 중심에서 벗어난 듯하였다.<sup>29)</sup> 그러나 『주역전의대전』이 조선에 수입되면서 힘을 얻지 못한 주희의 역학은 정약용을 만나게 된다. 정약용은 주희가 제시하지 못한 새로운 방법으로 정약용 역학을 탄생시킨다.<sup>30)</sup> 정약용은 원형이정에 대해 일단 주희가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한 부분을 받아들인다. 정약용은 건괘의 원형이정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단사(象辭)에서 ‘원형(元亨)’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원(元)’은 시작을 뜻하고 큼(大)을 뜻한다.(주자의 말이다.-원주) 곧이 장차 건으로 변해감에, 복괘(復卦)의 한 개의 양이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하니(즉, 천근(天根)을 가리킴-원주) 이 한 개의 양은 진(震)의 덕이 생겨나는 근원(元)인 것이다.〔「문언전」에서 ‘원(元)’을 ‘선지장(善之長)’이라 하였다.-원주 [이렇듯 원(元)으로부터 시작하여 마침내 행동하게 되니, 그 점이 ‘원형(元亨)’이 된다. ○‘이정(利貞)’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이(利)’는 조화로운(和)이고, 마땅함(宜)인데(주자의 말이다.-원주) 복괘가 건괘로 되는 과정에서 괘괘(夫卦)의 한 개의 음이 아직 (다른 다섯 개의 양과) 합쳐지지 않고 있으니(괘에는 다섯 개의 양이 있다.-원주) 이것이 태(兌)의 덕으로서의 이(利)이다.〔「문언전」에서 ‘이(利)’는 ‘의지화(義之和)’라고 하였다.-원주 이렇게 일(貞)하는 것이 이로우니, 그 점이 ‘이정(利貞)’이 된다.<sup>31)</sup>

정약용의 위의 해석을 보면 주희의 “원형하고 이정하다”라는 해석을 받아들이면서 「문언전」의 의미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언전」을 패사를 해석하는 일부로 여긴 것이다. 왕필이나 정이와 같이 「문언전」

29) 清代에 李光地가 『周易折中』을 편찬함으로써 일정 부분 朱熹의 易學에 대해 보충을 하였다.

30) 丁若鏞의 易學에 대해서는 金麟哲, 『茶山『周易』解釋體系에 대한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1999); 黃炳起, 『茶山 丁若鏞의 易象學』, 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2004); 徐根植, 『朝鮮後期 實學派의 『周易』 解釋方法論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2006); 張正郁, 『『周易』의 구성체제와 易象의 상징체계: 茶山易學을 중심으로』,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2009)를 참조할 것.

31) 『周易四箋』 15 乾卦 卦辭에 대한 丁若鏞의 註釋, 102쪽. “○其謂之元亨者 何也. 元者始也大也. 朱子云 坤之將乾也 復一陽始生即天根 此震德之元也. 善之長 元而遂亨 其占元亨也. ○其謂之利貞者 何也. 利者 和也宜也. 朱子云 復之爲乾也 夫一陰未合夫五陽此兌德之利也. 義之和 利於爲貞 其占利貞也.”

에 원형이정을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라고 해석하였으므로 이것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원형이정에 대한 「문언전」의 내용을 긍정하지만 주희와 같이 점사로 보고 있다. 따라서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의미이다. 「문언전」의 내용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필과 정이는 원형이정을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라고 해석하였고, 주희는 『역경』과 『역전』을 철저하게 분리시켜 『역경』의 내용을 점사로 만들었다. 그러나 정약용은 왕필·정이·주희가 해석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었다. 정약용은 현재 우리가 「문언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역』을 해석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라고 생각하였다.<sup>32)</sup> 「역례비석 상(易例比釋 上)」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은 정약용이 우리가 현재 「문언전」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된 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자의 「단전」<sup>33)</sup>에서 ‘원형(元亨)’을 ‘시이형(始而亨)’이라 하고, ‘이정(利貞)’을 ‘내이정(乃利貞)’이라 하여, (이 네 가지를) 둘씩 묶어서 말하고, 네 가지를 나누어 말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문왕의 괘사(彖詞)에서도 ‘원형(元亨)’이 하나의 구절이 되고, ‘이정(利貞)’이 하나의 구절이 됨을 알 수 있다. 점법에서도 여전히 ‘대형이정(大亨以貞)(元亨利貞)’일 따름이다.<sup>34)</sup>

정약용은 현재의 「문언전」에서도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됨을 증명하고 있다. 원형이정을 하나씩 나누어 언급한 적은 없고, 2개씩 묶어서 언급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원형이정이 나온 건괘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괘에서도 주희가 그랬듯이 모두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하였

32) 현재 우리가 「文言傳」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丁若鏞은 따로 「문언전」이라는 것을 두지 않았다. 丁若鏞은 『十翼』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는데, 「文言傳」은 『十翼』에서 빼버렸으므로 주석하지 않았다. 자세한 것은 徐根植, 「茶山 丁若鏞의 ‘蓍卦法’ 연구」, 成均館大學校 碩士學位論文(2002)의 II장 『十翼』의 재구성을 참조.

33) 여기서 丁若鏞은 「彖傳」이라고만 하고 있는데, ‘乃利貞’이라는 표현은 「彖傳」이 맞지만 ‘始而亨’이라는 표현은 「文言傳」에서 나온 말이다. 丁若鏞은 「文言傳」을 「繫辭傳」에서 雜出되어 나온 것이라 하고 「繫辭傳」은 「彖傳」이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文言傳」을 「彖傳」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34) 『周易四箋』 15 「易例比釋 上」 〈元亨利貞 例〉, 65쪽. “孔子彖傳 元亨則曰始而亨 利貞則曰乃利貞 混合言之 未嘗四破 可見文王卦詞 元亨爲一句 利貞爲一句 其在占法 仍是大亨以貞而已.”

다. 여기서 주희의 해석과 다른 부분은 ‘정(貞)’자의 해석이다. 주희는 ‘정’을 “바르게 하다”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정약용은 “정(貞)은 올바름(正)을 뜻하니, 올바름에 머물러 일을 주관(主幹)하는 것이다”<sup>35)</sup>라고 하여 ‘정’을 “일을 맡아 처리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약용 이전에는 1명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없다. 정약용은 ‘정’자를 “일을 맡아 처리한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원형이정의 의미를 주희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또 정약용은 효변을 알지 못했다고 왕필을 비판하고 있다.<sup>36)</sup> 만약 왕필이 효변을 알았다면 득의망상론은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약용은 왕필이 득의망상론을 내세움으로써 한대 상수역학의 중요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것이다. 정약용은 「설괘전」을 매우 중시하였는데 이는 역리사법 가운데 물상(物象)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물론 「설괘전」의 해석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지만 정약용은 「설괘전」에 나온 내용을 굳건하게 믿고 「설괘전」이야말로 『주역』을 이해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하였다.

정약용은 곤괘의 ‘원형이빈마지정(元亨利牝馬之貞)’을 해석하면서도 ‘원형(元亨)’에 구두를 하라고 표시까지 해두었다. 이에 대한 주석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 ‘원형(元亨)’이라고 한 것은 군주의 도가 형통함을 뜻한다. [‘원량(元良), ‘원수(元首)’라는 말과 같이 고대에 군주를 ‘원(元)’이라고 하였다. -원주<sup>37)</sup>

정약용은 여기에서도 원형이정을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하였다. ‘원(元)’의 의미를 군주라고 해석하면서 “군주가 형통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수괘의 괘사에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주희는 수괘에서 『춘추좌씨전』의 목강(穆姜)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35) 『周易四箋』 15 乾卦 卦辭에 대한 丁若鏞의 註釋, 102쪽. “貞者 正也 居正以幹事也.”

36) 『周易四箋』 卷一 「爻變表直說」, 51-52쪽. “爻不變 則推移之法 亦不可通. 此推移之所以廢. [...] 爻不變 則說卦物象 亦皆不合. 此說卦之所以廢. [...] 爻不變 則互體之物 亦皆不合. 此互體之所以廢.”

37) 『周易四箋』 15 坤卦 卦辭에 대한 丁若鏞의 註釋, 120쪽. “○元亨者 君道之亨也. 元良元首 古以君爲元.”



살피건대 『춘추좌씨전』(양공(襄公) 구난-원주의 목강의 서(筮)에서 ‘간지수(艮之隨)’를 얻었는데,(즉, 하(夏)·상(商)의 역법이다.-원주) 그때 ‘원형이정(元亨利貞)’의 뜻을 풀이한 것은 건괘의 「문언전」과 동일하다.[정강성(鄭康成)도 이 괘를 주석하면서 역시 네 가지 덕을 나란히 배열하여 설명하였다.-원주 그러나 ‘원형(元亨)’이란 군주의 도가 형통함을 가리키며, ‘이정(利貞)’이란 일을 주간함에 이로움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단전」에서도 그런 점을 밝힌 것이다.(건괘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원주)<sup>38)</sup>

정약용은 주희보다 강하게 목강의 서(筮)를 네 가지 덕으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정약용은 ‘원형이정’을 정현(鄭玄, 127-200)까지 네 가지 덕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원형’은 군주의 도가 형통함이고 ‘이정’은 일을 주간함에 이로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이미 주희에게서 나타났지만 정약용은 원형이정이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정약용은 원형이정의 해석에서 주희가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한 부분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원형이정이 나온 7개의 괘에서도 주희가 그랬듯이 모두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하였다. 또 정약용은 ‘정(貞)’자를 “일을 맡아 처리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원형이정의 의미를 주희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다. 정약용은 왕필의 득의망상론을 비판하여 명실상부한 상수역학자로서의 길은 걷는다. 정약용은 왕필이 득의망상론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효변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VI. 원형이정 해석에 대한 학자별 특징

원형이정의 해석은 학자별로 커다란 차이점을 불러일으켰고, 그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졌다. 왕필은 득의망상론으로 유명하다. 그의 득의망상론은 한대 상수역학이 불러일으켰던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하고 의리역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원형이정에 대해서는 건괘 「문언전」의 말을 따르면서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라고

38) 『周易四箋』 15 隨卦 卦辭에 대한 丁若鏞의 註釋, 235쪽. “○案春秋傳襄九年 穆姜之筮 遇艮之隨即夏商之易其釋元亨利貞之義 仍與乾之文言同. 鄭康成 註此卦 亦兼陳四德 然元亨者 君道之亨也 利貞者 利於幹事也 故彖傳明之. 詳乾卦.”

해석하였다. 그리고 다른 괘에서는 모두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하였다. 이것은 『역경』과 『역전』 가운데 『역전』의 내용을 중요시한 것이다. 왕필은 득의망상론으로 한대역학을 일소(一掃)한 공이 있지만, 「문언전」을 중시하여 『역전』의 내용을 중요시한 부분은 원형이정의 해석을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정이의 『역전』에서 제시한 원형이정의 해석은 왕필이 건괘 「문언전」을 해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이다. 그러나 무괘괘와 혁괘의 주석에서 “원형하고 이정하다”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놓았다. 즉 정이는 왕필의 입장을 수용하였지만 일부 괘에서 모순이 발생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주희는 정이와는 달리 『고역(古易)』에 주석을 붙이면서 『주역』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였다. 주희의 역학은 상수역학이나 의리역학이나의 갈림길에 있다. 그의 저작인 『역학계몽(易學啓蒙)』을 보면 상수역학자인 것 같지만 그의 역학은 의리·상수역학으로 보아야 한다.<sup>39)</sup> 주희의 『주역』 해석에서 중요한 점은 『역경』과 『역전』을 분명히 구분하고 『역경』을 점치는 책으로 여겼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형이정도 점사로써 “원형하고 이정하다”로 해석하였다. 또 정이와는 달리 주희는 7괘에서 모두 원형이정을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하여 일관성을 보였다.

정약용은 주희의 견해를 수용하여 원형이정을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주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자신의 견해<sup>40)</sup>를 제시하여 독창성을 주장한다. 또 정약용은 ‘정(貞)자’를 “일을 맡아 처리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으로써 원형이정의 의미를 주희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또 정약용은 왕필의 의리역학을 비판하였는데, 왕필이 효변을

39) 『易學啓蒙』은 象數易學을 위한 책인 것 같지만, 그 저술목적은 보면 분명히 義理易學과 象數易學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지은 것이라고 되어 있다. 즉, 사람들이 象數에 대해 모르므로 『易學啓蒙』에서 정리를 한 것뿐이다. 『易學啓蒙』에서 象數易學을 정리한 후 朱熹는 象數易學과 義理易學 모두를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易學啓蒙』이 象數易學과 義理易學을 동시에 추구하였다는 것은 徐根植, 「朱子 『易學啓蒙』의 體系의 研究」, 『東洋古典研究』 第43輯(東洋古典學會, 2011. 6.)을 참조할 것.

40) 『周易四箋』 15 「四箋小引」, 31-32쪽. “一曰推移. ○朱子卦變圖 卽此法也. 與本義之言卦變不同. 唯中孚小過 不入辟卦 然推移者 朱子之義也. 二曰物象. ○朱子於大壯 以兌爲羊見六五 於旅卦 以離爲雉見六五 物象之從說卦者 朱子之義也. 三曰互體. ○朱子曰互體不可廢見大傳 雜物撰德之章 又曰左傳 分明用互體. 指陳完之筮 互體者 朱子之義也. 四曰爻變. ○朱子曰 遇一爻變 以本卦之變爻辭占. 見啓蒙 占法既然 經旨宜同. 爻變者 朱子之義也.”

몰랐기 때문에 득의망상론과 같은 이론을 내세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정약용의 역학도 문제점이 있다. 정약용 역학의 문제점은 방인 교수가 “정약용의 양호작괘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나친 작위성에 있다. 정약용은 『주역사전』에서 양호작괘법을 빈번하게 사용한다. 양호작괘법의 무분별한 남용은 해석학적 곤란을 해소시켜주는 커녕 역사에 상응하는 패상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양호작괘법은 다른 모든 해석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인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과연 양호작괘법을 사용하는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하는 데 있다. [...] 뿐만 아니라 정약용 이전에 양호작괘법을 사용한 사례가 매우 드물고, 그 문헌적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sup>41)</sup>라고 지적했듯이 정약용도 문헌적 근거가 희박한 양호작괘법(兩互作卦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완벽해 보이던 정약용의 역학도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 VII. 맺음말

지금까지 4명의 학자가 어떻게 『주역』의 원형이정을 해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원형이정의 해석은 『주역』 전체에 효력이 미칠 만큼 효력이 크다. 그리고 4명의 학자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원형이정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살펴볼 수 있다.

왕필의 원형이정 해석은 건괘 「문언전」을 살펴보라고 할 만큼 「문언전」에 의지하고 있다. 건괘 「문언전」에서는 원형이정을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다른 괘들은 모두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하였다. 이런 점으로 본다면 왕필은 『역경』과 『역전』을 분리해서 본 것 같지 않다.

정이는 원형이정 해석은 왕필이 건괘 「문언전」을 해석한 입장을 수용하여, 원형이정을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왕필과 다른 점은 왕필은 도가적 입장이고 정이는 유가적 입장이라는

41) 방인, 『다산 정약용의 『주역사전』 기호학으로 읽다』(예문서원, 2014), 427쪽.

것뿐이다. 그리고 무망괘와 혁괘에서는 원형이정을 “원형하고 이정하다”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석했는데, 이는 다른 5괘와 모순이 생기게 된다. 원형이정의 해석을 통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완전한 해석은 아니다.

주희의 원형이정 해석은 정이의 해석과는 관련하여 다르다. 주희는 정이가 『금역(今易)』에 주석한 것과는 달리 『고역(古易)』에 주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역경』과 『역전』을 분리하여 『역경』의 내용은 점사로 여겼다. 따라서 원형이정을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주희의 해석은 7괘 모두에서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번역되지만 뒤에 정약용에 대해 주희의 견해들에 수정을 가한다.

정약용의 원형이정 해석은 주희가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한 부분을 받아들인다. 정약용의 해석은 완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희가 원형이정에 대해 주장했던 것보다 강하게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정약용은 ‘정(眞)자를 “일을 맡아 처리한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원형이정에 대한 의미를 주희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정약용의 해석도 방인 교수의 지적처럼 양호작괘법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문헌적 근거가 희박한 양호작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명의 학자는 자신의 견해를 바탕으로 『주역』을 해석하고 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확정지어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정약용의 원형이정 해석이 보다 완전하게 보인다. 그러나 정약용의 해석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정약용의 해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 고 문 헌

### 1. 1차 자료

- 王弼, 『周易注』 『王弼集校釋』 上, 下. 中華書局, 1999.
- 廖名春·康學偉·梁韋弦, 『周易研究史』. 湖南出版社, 1991.
- 정약용, 『주역사전』 『(교감·표점)정보 여유당전서』(전37책). 다산학술문화재단, 2012.
- 程頤, 『周易程氏傳』 『二程集』 上, 下. 中華書局, 2008.
- 朱伯崑, 『易學哲學史』(全4冊). 崑崙出版社, 2005.
- 朱熹, 『周易本義』 『朱子全書』(全27冊). 上海古籍出版社, 2002.

### 2. 단행본

- 김인철, 『다산의 주역 해석체계』. 경인문화사, 2003.
- 박주병, 『주역반정(周易反正): 정약용 역학을 중심으로』. 서문당, 2002.
- 방인, 『다산 정약용의 『주역사전』 기호학으로 읽다』. 예문서원, 2014.
- 朱伯崑 著, 김학권 외 역, 『역학철학사』 1-8권. 소명출판, 2012.

鈴木由次郎, 『漢易研究』. 東京: 明德出版社, 昭和38년(1963).

### 3. 논문

- 김영우, 『정약용의 역학 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김왕연, 『다산 역학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김인철, 『다산 『주역』 해석체계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문재곤, 『한대역학연구: 폐기역학(卦氣易學)을 전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박주병, 『『주역』의 괘에 대한 연구: 정약용 역학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백은기, 『주자역학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서근식, 「다산 정약용의 '시괘법(蓍卦法)'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_\_\_\_\_, 『조선 후기 실학파의 『주역』 해석방법론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_\_\_\_\_, 「주자 『역학계몽』의 체계적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43집, 동양고전학회, 2011. 6.
- 엄연석, 『정이 『역전』의 역학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유문상, 『다산 역학의 특성과 윤리적 함의』. 한국고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이세동, 『주자 《주역본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임채우, 『왕필 역 철학 연구: 이간어반사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장정욱, 『『주역』의 구성체제와 역상의 상징체계: 다산역학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정해왕, 『주역의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 정약용의 역학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황병기, 『다산 정약용의 역상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국 문 초 록

왕필의 원형이정(元亨利貞) 해석은 건괘 「문언전」을 살펴보라고 할 만큼 「문언전」에 의지하고 있다. 건괘 「문언전」에서는 원형이정을 “원(元)하고 형(亨)하고 이(利)하고 정(貞)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6괘에서는 “원형(元亨)하고 이정(利貞)하다”라고 해석하였다. 이런 점으로 본다면 왕필은 『역경』과 『역전』을 분리해서 본 것 같지는 않다.

정이는 왕필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원형이정을 “원(元)하고 형(亨)하고 이(利)하고 정(貞)하다”라고 해석하였다. 정이는 다른 5괘와 모순되게 무망괘와 혁괘에서는 원형이정을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하였다. 원형이정의 해석을 통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완전한 해석은 아니다.

주희는 정이가 『금역(夬易)』에 주석한 것과는 다르게 『고역(古易)』에 주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역경』과 『역전』을 분리하여 『역경』의 내용은 점사(占辭)로 여겼다. 그는 원형이정을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하였다.

정약용은 주희가 원형이정을 “원형하고 이정하다”라고 해석한 부분을 받아들인다. 또 정약용은 ‘정(貞)자를 “일을 맡아 처리한다”로 해석함으로써 원형이정에 대한 의미를 주희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정약용의 해석은 완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역학 역시 문헌적 근거가 희박한 양호작괘법(兩互作卦法)을 사용하고 있다.

**투고일** 2016. 12. 19.

**심사일** 2017. 1. 10.

**게재 확정일** 2017. 2. 27.

**주제어(keyword)** 왕필(王弼)의 의리역학(義理易學)(Wang Bi's YiliYixue), 정이(程頤)의 의리역학(義理易學)(Cheng Yi's YiliYixue), 주희(朱熹)의 상수·의리역학(象數·義理易學)(Zhu Xi's Yili · Xiangshuyixue), 정약용(丁若鏞)의 상수역학(象數易學)(Jeong Yak-yong's Xiangshuyixue), 원형이정(元亨利貞, Yuanhenglizhen), 「문언전(文言傳)」(Wenyanzhuan), 「설괘전(說卦傳)」(Shuoguazhuan)

###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Yuanhenglizhen(元亨利貞) of *Yiling*(『周易』): Focusing on Wang Bi(王弼) · Cheng Yi(程頤) · Zhu Xi(朱熹) · Jeong Yak-yong(丁若鏞)

Seo, Geun-sik

Wang Bi(王弼)'s interpretation of Yuanhenglizhen(元亨利貞) is so dependent on Wenyanzhuang(『文言傳』) that it's said that one can look up Qiangua(乾卦) Wenyanzhuang. In Qiangua(乾卦) Wenyanzhuang, Yuanhenglizhen(元亨利貞) is interpreted as "Yuan(元) and Heng(亨) and Li(利) and Zhen(貞)." However, in other 6 Gua(卦), it's interpreted as "Yuanheng(元亨) and Lizhen(利貞)." In this respect, it doesn't seem that Wang Bi separated *Yijing*(『易經』) from *Yizhuan*(『易傳』).

Cheng Yi(程頤)'s interpretation of Yuanhenglizhen accepts Wang Bi's views, so it says "Yuan and Heng and Li and Zhen." Cheng Yi(程頤) interpreted as "Yuanheng and Lizhen." with Wuwangua(无妄卦) and Gegua(革卦), which is contradictory to other 5Gua(卦). It's not a complete interpretation in that the interpretations on Yuanhenglizhen were not unified.

Different from Cheng Yi's annotation in *Jinyi*(今易), Zhu Xi(朱熹) annotated in *Guyi*(古易). And he separated *Yijing* from *Yizhuan*, and regarded the contents in *Yijing* as Zhanci(占辭). He interpreted Yuanhenglizhen as "Yuanheng and Lizhen." However, he made an error of considering Qian(乾) as dragon, so it's not a complete interpretation.

Jeong Yak-yong(丁若鏞)'s interpretation of Yuanhenglizhen accepts Zhu Xi(朱熹)'s view of "Yuanheng and Lizhen." Yet, he said that Qiangua, which Zhu Xi couldn't interpret, is what Zhen(震) is accumulated. It's a very progressive opinion in the history of the theory on *Yijing*. The fact that Zhen(震) is dragon is in Shuoguazhuang(『說卦傳』). In this way, Jeong Yak-yong thought of Shuoguazhuang as important in the interpretation of *Yiling*. Jeong Yak-yong's interpretation looks complete. Yet, his theory on the *Yiling*(『周易』) is also grounded on insufficient documentation in the use of Lianghuzuoquafu(兩互作卦法).

Wang Bi's YiliYixue(王弼의 義理易學), Cheng Yi's YiliYixue(程頤의 義理易學), Zhu Xi's Yili · Xiangshuyixue(朱熹의 義理 · 象數易學), Jeong Yak-yong's Xiangshuyixue(丁若鏞의 象數易學), Yuanhenglizhen, Wenyanzhuang, Shuoguazhuang.